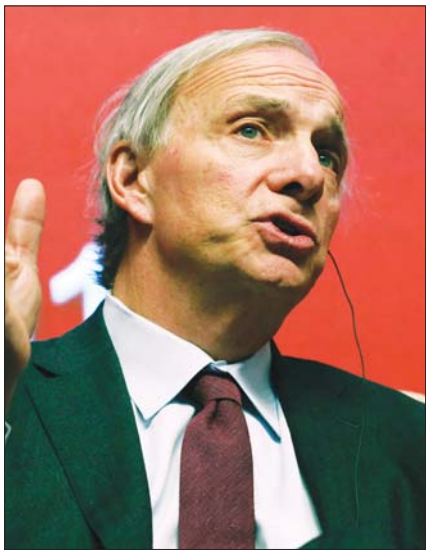


365조달러 빚더미에 국채 매도까지… 세계 부채 ‘경고등’

OECD 이자비용 2조달러 넘어
미국 정부부채 40조달러 돌파
고령화·의무지출 재정부담 가중
국부펀드·연기금 미 국채 축소
각국 국채 매도 압력도 거세져

“현재 세계는 부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났는데, 교역은 둔화되고, 선진국 대부분은 고령화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연금, 의료 서비스 비용 등에 더 많은 나랏돈을 투입(무지출)해야 해 부채를 줄이기가 과거보다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빚 조달도 갈수록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외국계 투자은행 A임원)

‘금리의역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 ‘빚의 무게’는 커지는 데, 부채를 늘리려는 ‘빚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있어서다. 박상현 IMF증권 연구원은 “향후 경제와 금융시장의 방향이 차입 비용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 /뉴시스

관리와 AI 기술이 이끄는 성장세 사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현실화한 ‘빚 폭탄’

세계 각국은 ‘금리의역습’에 허리가 휘 정도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부채는 365조달러(약 50경원)로 불어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총 2조달러(약

2689조원)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19%로 2024년(3.24%)에 이어 2년 연속 3%를 초과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방 비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각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빚더미 위에 앉은 상황에서 채권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해 차입 비용이 급증한 점이 문제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 8월 처음으로 40조 달러(약 5경3700조원)를 넘었다. 올해 OECD 국가들은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약 2경4200조원)를 추가로 빌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2022년 금융시장에 대한란을 가져왔던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 사태 때보다도 금리가 높아 현재 이자 비용이 연 1100억파운드(약 200억원)에 달한다.

프랑스는 2024년 총선 이후 총리를 3명이나 맞이하는 정치 혼란을 겪었는데, 그 중 한 원인은 부채 비용에 따른 재정 압박이 있다.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달 연설에서 “정부 부채 이자를 부처로 취급해보면 화이트홀(영국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어 두 번째이고, 국방부·내무부·법무부를 합친 것보다도 큰 부처일

것”이라며 “정부 지출 10파운드 가운데 1 파운드를 이자에 쓰는 건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이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의지가 시장에 있을지, 선진국 정부들에 차입을 억제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이에 올여름 이후 채권시장 매도(금리 급등)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분기 대비 0.87%포인트 오른 연 5.29%로 거래를 마쳤다. 분기 기준 1994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연준이 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1994년은 ‘채권 대학살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국채 금리가 폭등했던 때인데, 채권 시장에 당시와 견줄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리 없이 벌어지는 세계 국채 전쟁

세계 경제가 빚의 굴레에서 안제쯤 자유로워질까. ‘침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답이 많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각국이 국채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채권 전쟁이 확대되면 채권 가격

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금리 상승의 강력한 기폭제가 된다.

2조3000억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은행투자관리청(NBIM)은 펀드의 운용지침을 정하는 노르웨이 재무부에 채권 투자에서 국채 비중을 현재 70%에서 50%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가장 비중이 큰 미 국채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약 2150억달러였던 미 국채 보유액 가운데 약 800억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는 미 국채 보유액을 2024년 말 290억유로에서 올해 1분기 말 46억유로로 줄였다.

오랜 기간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꼽히는 중국과 일본의 최근 미 국채 매도 상황도 국채 전쟁과 무관치 않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미 국채 보유국인 일본은 올해 들어 7월까지 128억달러를 팔아 1조1039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액도 6180억달러로 줄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저치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국산 오가노이드 평가기술, 첫 국제표준 확립

생명연, 실제 장기 유사도 백분율 산출
데이터·유전자 분석 전 과정 표준화

국내 연구진이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유사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국제표준 절차로 확립했다. 전 세계 오가노이드를 평가할 수 있는 ‘공동 잣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 정량 평가 기술이 처음으로 국제표준으로 확립된 성과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조현수 센터장과 디지털바이오연구센터 김대수 센터장 공동연구팀은 인간 만능줄기세포(hPSC) 유래 오가노이드와 실제 인체 장기와의 유사도를 백분율 점수로 산출하는 정량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표준 절차로 확립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 구성부터 유전자 패턴 선정, 유전자 데이터의 신뢰도 및 품질 관리, 유사

도 계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누구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정량적 품질평가의 표준 절차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화학적 기반 오가노이드 정성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 연구자와 제약회사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오가노이드의 완성도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신약 독성·효능 평가용 오가노이드의 품질관리, 세포치료제 개

발, 오가노이드 기반 시험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의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유사하게 재현한 3차원 세포집합체다. 인체에 직접 약물을 투여해 보지 않고도 신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알아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비슷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었다. 기존에는 특정 장기의 분화 마커를 생화학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정성 평가’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연구실마다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방법과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장기 유사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번 생명연이 만든 평가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식 기술시방서(ISO/TS 24932)로 최종 제정되어 8월 전 세계에 공식 발간됐다. ISO 표준문건인 만큼 전 세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 명칭은 ‘유전체 정보학·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의 유사도 발현 패턴 기반 유사도 산출 절차’이며, 조현수·김대수 센터장이 공동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metro

진안으로 GO! 음식으로 ONE!

진안고원푸드페스타

2026. 10. 24. 토 - 10. 25. 일 진안공설운동장 일원

10. 24. 토 세프라이브배틀

정호영 셰프 VS 박은영 셰프

10. 25. 일 고원 미식회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

10. 25. 일 고원 한입 쿠팡쇼

140만 인기 유튜버 취요남

놀GO! 먹GO!

- 전국 대학생 요리경연대회
- GO ONE 샌드위치 랩
- 시장 미션 빙고
- 색(色) 찾아 시장 한바퀴

• 주최

진안군

• 주관

진안군관광협의회